



보도 자료 베를린, 2023 년 6 월 5 일

DMZ - 냉전의 마지막 전선

2023.7.28 - 2024.03.31

2023년 7월 27일은 판문점 정전협정 체결 70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이 협정은 1950년부터 1953년까지 조선인민공화국과 전쟁에 개입한 중국이 한 편이 되고 대한민국과 미국이 주도한 유엔군이 한 편이 되어 치열한 전투를 벌였던 한국전쟁을 종식시켰습니다. 한국전쟁으로 인한 희생자는 약 400만 명에 달합니다. AlliiertenMuseum은 적대 행위 종식과 비무장 지대 (DMZ) 설정 70 주년을 맞아 박종우 작가의 사진을 전시합니다.

비무장 지대 - DMZ

오늘날까지 남한과 북한은 공식적으로 전쟁 상태에 있습니다. 두 국가 간의 평화 조약은 체결된 적이 없으며, 휴전 협정으로 비무장 지대가 설정 되었습니다. 양측은 휴전선을 기준으로 총 4km 폭의 비무장지대에 군사기지와 초소를 세워 놓고 있습니다. 휴전선은 세계에서 가장 엄중하게 경비가 이루어지는 국경선 중 하나이며 황해에서 동해까지 38도선을 따라 248킬로미터에 걸쳐 있습니다. 오늘날 비무장지대는 여전히 전 세계에 그 흔적을 남긴 냉전의 증거입니다. 유럽에서는 30여 년 전 독일 통일과 함께 철의 장막이 사라졌지만 한반도에서는 여전히 쓰라린 현실입니다.

박종우 작가 사진

한국의 다큐멘터리 사진작가 박종우(*1958년생)는 2009년과 2010년에 한국 국방부의 초청을 받아 비무장지대에 주둔하는 군인들을 동행했습니다. 그 덕분에 박종우 작가는 민간인 최초로 일상적인 군 생활과 풍경, 자연을 사진과 영상으로 기록할 수 있었고, 그 결과 흥미롭고 섬세하며 다양한 사진들이 탄생했습니다.

다큐멘터리스트이자 전직 포토저널리스트인 박종우 작가는 전 세계 소수민족의 삶을 카메라에 담고 있습니다. 박종우 작가는 1983년부터 1995년까지 한국일보, 뉴욕타임스, 로스앤젤레스 타임즈에서 사진기자로 근무했습니다.

그의 비무장지대 사진 시리즈에는 군사 시설과 자연의 아름다움이 대비되는 이 지역 특유의 긴장감이 흐릅니다. 또한, 철조망과 초소, 무장 병력을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오늘날 멸종 위기에 처한 수많은 종들에게 서식지를 제공하는 다양한 초식물도 볼 수 있습니다.

옛 동서독 국경의 역사적 사진들

AlliiertenMuseum, Clayallee 135, 14195 Berlin

Presse: 0173 7022453

Telefon +49 / (0)30 / 81 81 99 -0

Fax +49 / (0)30 / 81 81 99 -91

E-Mail info@AlliiertenMuseum.de

www.alliiertenmuseum.de

www.facebook.com/alliiertenmuseum



보도 자료 베를린, 2023 년 6 월 5 일

독일, 특히 분단의 역사를 간직한 베를린은 냉전 시대의 마지막 국경을 사진으로 살펴볼 수 있는 곳입니다. AlliiertenMuseum에는 옛 동서독 국경의 상황을 기록한 수많은 사진이 소장되어 있습니다. 이 사진들은 1945년부터 1990년까지 동독과 서독 사이의 국경을 따라 주둔했던 미군에 의해 촬영되었습니다. 이 사진들에 산재되어 있는 역사적 모티브는 박종우 작가의 사진들과 교차됩니다. 독일은 1990년 통일을 이루었지만, 한반도는 지뢰와 철조망으로 이루어진 철의 장막이 여전히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대한민국을 분리하고 있습니다. 남북한의 분단은 연방 공화국과 동독 사이의 분단보다 훨씬 더 골이 깊습니다. 한국에서는 적십자사가 주최하는 감동적인 이산가족 상봉이 가끔씩 있을 뿐이지만, 동서독 간의 국경은 더 개방적이어서 친척과의 접촉이나 방문이 가능했습니다.

AlliiertenMuseum

25 년 동안 냉전의 역사 및 베를린과 독일을 위한 연합국의 공로를 기념해 온 AlliiertenMuseum(연합군 박물관)은 이번 전시를 통해 세계의 정치적 갈등을 살펴보고 박종우 작가의 사진과 옛 동서독 국경의 역사적 사진을 병치하여 비극적인 시사성을 여실히 보여줍니다. AlliiertenMuseum 은 다국적 뿌리와 냉전의 역사에 대한 국제적 관점을 가진 기관으로서 이번 전시를 통해 독일 박물관계에서의 유니크한 면모를 선보입니다.

이벤트

남북한 관계의 역사와 현재 상황, 지역 및 국제적인 영향, 한국 문화와 사회에 대한 통찰에 대한 공개 가이드, 영화 및 개별 이벤트가 전시와 함께 진행됩니다.

DMZ - 냉전의 마지막 전선

2023.7.28 - 2024.3.31

주소: Alliierten Museum, Clayallee 135, 14195 Berlin

개관 시간: 화요일-일요일, 10-18 시 사이. 입장료 무료

박종우 작가와 함께하는 언론인 관람/투어: 2023. 7.27 11 시

개관: 2023 7 월 27 일 19 시

보도자료: <https://www.alliiertenmuseum.de/presse/der-pressebereich-des-alliiertenmuseums/>

지원 언론사: 아르테팩트 컬처콘셉트(Artefakt Kulturkonzepte) 우줄라 뢰터 Ursula Rüter, ursula.rueter@artefakt-berlin.de

AlliiertenMuseum, Clayallee 135, 14195 Berlin

Presse: 0173 7022453

Telefon +49 / (0)30 / 81 81 99 -0

Fax +49 / (0)30 / 81 81 99 -91

E-Mail info@AlliiertenMuseum.d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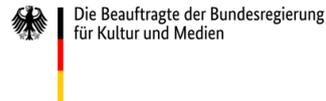
www.alliiertenmuseum.de

www.facebook.com/alliiertenmuseum



보도 자료 베를린, 2023 년 6 월 5 일

AlliiertenMuseum(연합군 박물관) 후원처:



본 전시회의 재정 후원:



AlliiertenMuseum, Clayallee 135, 14195 Berlin

Presse: 0173 7022453

Telefon +49 / (0)30 / 81 81 99 -0

Fax +49 / (0)30 / 81 81 99 -91

E-Mail info@AlliiertenMuseum.de

www.alliiertenmuseum.de

www.facebook.com/alliiertenmuseum